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19, pp.201-227
<https://doi.org/10.29212/mh.2021..119.20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남-북-이란 삼각관계

— 이란-이라크 전쟁 초기(1980-1984) 이란의 헤징전략 —

이한형*

1. 서 론
2. 분석틀: 헤징전략(Hedging Strategy)
3.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
4. 전쟁 초기 남-북-이란 삼각관계
5. 결 론

1. 서 론

2018년 5월 8일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미국을 포함한 P5+1(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사이에 체결되었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하 JCPOA)’

*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박사과정, 본 논문의 완성과정에서 귀중한 논평을 해주신 네분의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기를 결정하였다.¹⁾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의 핵 문제를 일단락 지었던 합의가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와해된 것이다. 이후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2019년 6월 이란 근해 상공에서 미군의 무인정찰기가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9월에는 사우디의 정유시설이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후티반군에 의해 피습당하였다. 2020년 1월에는 미군이 드론을 통한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거شم 솔레이마니(Cassem Soleimani) 사령관을 사살하였고 11월에는 이란 핵개발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모센 파크리자데(Mohsen Fakhrizadeh)가 암살되었다. 미국의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과 이에 대한 이란의 대응이 중동의 정세를 단계적으로 긴장(escalation)시키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기 결정과 관련하여 미국 내 여론은 이해관계 여부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 트럼프의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JCPOA가 이란에 가해진 광범위한 경제제재를 해제함으로써 이란이 추가적인 핵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²⁾ 또한 JCPOA는 이란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연시킬 뿐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JCPOA의 과기는 미국의 국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며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반면, 트럼프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JCPOA의 과기가 이란의 핵 개발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JCPOA는 외교와 협상을 통해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었으며 이란의 핵 개발 속도를 상당 부분 지연시키고

1)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Trump on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joint-comprehensive-plan-action/> (검색일: 2020년 8월 3일).

2) Paul K. Kerr and Kenneth Katzman, “Iran Nuclear Agreement and U.S. Exit,” CRS Report, R43333(July 20, 2018), p. 2.

있었으나, 파기로 인해 이러한 전략적 이점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외교의 신뢰 하락과 국제 비확산 노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³⁾

미국의 JCPOA 파기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북미 간 핵 협상에 미칠 영향이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북미 간 핵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JCPOA 파기 결정은 협상과정과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양자 간의 합의가 아닌 다자(P5+1) 간의 형태로 합의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파기되는 모습을 목도(目睹)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⁴⁾ 더구나, 이 결정은 미국에게 있어 이란-북한과의 양면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복잡한 계산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마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양면전쟁을 피하지 못해 패배한 것과 유사하게 미국에게도 힘든 싸움을 예고한다. 미국과의 핵 협상을 진행한다는 동일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란과 북한 양국으로써는 상호 긴밀한 접촉을 통해 서로의 협상전략과 기술, 노하우 등 진행 상황을 공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⁵⁾ 이를 통해 양국은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고 할 것이며, 미국에게 지속적으로 양보와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물론 이란과 북한

3) Ivan Timofeev, "US Withdrawal From the JCPOA and Anti-Iranian Sanctions: Pros and Cons," <https://russiancouncil.ru/en/analytics-and-comments/analytics/us-withdrawal-from-the-jcpoa-and-anti-iranian-sanctions-pros-and-cons/> (검색일: 2020년 8월 3일).

4) Dalia Dassa Kaye, "The Strategic Fallout of U.S. Withdrawal from the Iran Deal," <https://www.rand.org/blog/2018/05/the-strategic-fallout-of-us-withdrawal-from-the-iran.html> (검색일: 2020년 8월 3일).

5) NBCnews, "North Korea's foreign minister visits Iran after U.S. sanctions are reimposed" <https://www.nbcnews.com/news/world/north-korea-s-foreign-minister-visits-iran-after-u-s-n898611> (검색일: 2021년 3월 30일).

의 핵능력과 전략목표에서의 차이, 보안문제 등을 감안 시 대미 협상전략을 직접적으로 공유할 가능성은 낮지만 노동신문 등 북한의 공식매체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문제, 이란의 반제운동 등이 중점적으로 보도되는 만큼 최소한의 정서적 연대나 교감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 하에서 미국과 긴밀히 관련된 3개국, 즉 남-북-이란의 관계는 일반적인 동맹이론이나 세력균형 또는 위협균형의 측면에서 잘 설명되지 않는다. 남한과 북한은 6.25전쟁을 겪은 지 70여년의 시간이 흘렀으며,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로 대립 중이다. 남한은 미국과 군사적 동맹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적대세력인 이란과 1962년 공식 수교한 이래 지금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란 역시 남한을 배제하지 않고 경제 분야 위주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란에 대한 국제제재로 인해 수출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기준 이란의 14위 수입국이였다.⁶⁾ 이란과 북한은 조금 늦은 1973년 팔레비 정권시절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이란과 북한은 그들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한 미국이라는 공통의 위협인식과 함께 이란-이라크 전쟁에서의 군사교류, 핵-미사일 개발 협력 등 군사동맹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은 많았지만 실제로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⁷⁾ 특히, 이란은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북한에 대해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왔다.⁸⁾

6) 조선비즈, “한국, 지난해 대이란 수출 89% 급감...상위 20개국 중 최대 낙폭,”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2/2020011200271.html (검색일: 2020년 5월 9일).

7) The Diplomat, "The Myth of a 'Special' North Korea-Iran Relationship," <https://thediplomat.com/2017/04/the-myth-of-a-special-north-korea-iran-relationship/> (검색일: 2020년 5월 9일).

8) Lyong Choi et al, "The Dilemma of the "Axis of Evil": The Rise and Fall of Iran-DPRK Relation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31,

간단히 말해, 남-북-이란은 삼각관계⁹⁾가 형성 및 유지되기 어려운 조건 하에 있으면서도 현실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상호 공통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며, 그로 인해 이론적 예측을 넘어 관계를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변수가 삼각관계의 결정요인이며 그 기원은 어디인가? 왜 남-북-이란 삼각관계는 이론적 예측과 달리 유지되고 있는 것인가? 삼각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상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통해 남-북-이란 삼각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헤징전략(Hedging Strategy)’의 분석틀을 통해 삼국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남-북-이란의 삼각관계에 관한 연구로 시기적으로는 1979년 이란의 호메이니 혁명을 기점으로 시작한다. 호메이니 혁명을 연구의 시작점으로 삼은 것은 1962년 한국-이란 수교와 1973년 이란-북한 수교¹⁰⁾를 통해 삼각관계가 형성되었지만, 당시 이란은 팔레비 왕조로써 친미성향의 정부가 집권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역설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북-이란 삼각관계 속에서 이란의 헤징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4) 초기 기간에 집중한다. 이란-이라크 전쟁은 일반적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는데, 이란-이라크 전쟁 초기에 집중하는 이유는 전쟁 발발 직후 국제사회로부터의 정치적 지지와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얻으려는 이란의 노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임과 동시에 한국-이란 관계에서 역설

No. 4(December, 2019), p. 596.

9) 일반적으로 ‘삼각관계’는 한-미-일, 한-중-일, 북-중-러 등 통상 3개국 사이의 관계를 동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다. 다만, 본 글에서는 남-북 사이의 경쟁을 전제하고 이란의 헤징전략을 통해 3개국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삼각관계’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다.

10) 중앙일보, “이란-북한 수교협정,” <https://news.joins.com/article/1345868>(검색일: 2020년 5월 9일).

적으로 경제교역 규모가 증가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연구 자료는 비밀 해제된 당시 외무부와 현지 대사관들이 주고 받은 외교문서를 기반으로 한국-이란 및 북한-이란 관계, 이란-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저서, 학술논문, 기사, 인터넷 자료를 참고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이란의 대한반도 정책이 헤징전략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이란은 남북 사이의 갈등과 경쟁 관계를 적절히 이용하여 경제적·군사적 실리를 획득하고 있으며 이를 이란-이라크 전쟁에 적절히 활용하였다. 이처럼 남-북-이란 삼각관계 사이에는 서로에게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원천이 있었으며, 이론적 예측과 달리 역설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2. 분석틀: 헤징전략(Hedging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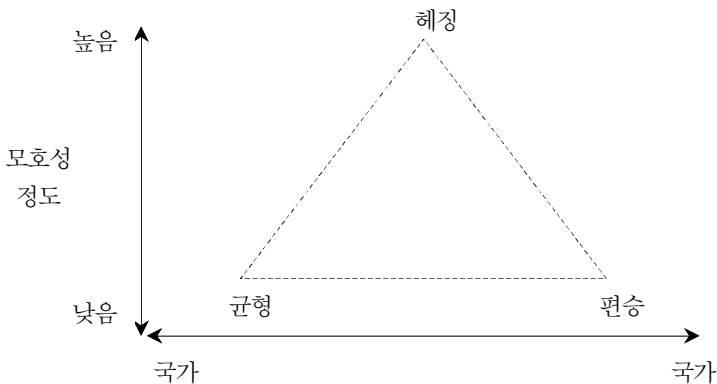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남-북-이란 삼각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헤징전략(Hedging Strategy)’을 틀로 사용하고자 한다. 헤징전략은 경제 분야에서 사용된 용어로 일반적으로 ‘위험 분산 전략’ 또는 ‘위험 회피 전략’으로 정의된다. 내가 가진 자산을 ‘손실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국제정치에서 이 용어가 등장하게 된 계기는 기존의 국제정치 이론들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국가에 대한 약소국들의 대응을 ‘균형(balancing)’ 또는 ‘편승(bandwagoning)’의 이분법적인 선택 이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를 노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헤징이라는 용어를 차용한 것이다.¹¹⁾

전통적 국제정치 이론의 한계에 따라 등장한 헤징전략은 고전적

11) Darren J. Lim and Zack Cooper, "Reassessing Hedging: The Logic of Alignment in East Asia," *Security Studies*, Vol. 24, No. 4(2015), p. 701.

인 균형과 편승의 구성요소 모두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수형에 따르면 헤징전략은 균형, 관여(engagement), 편승의 요소로 구성된다.¹²⁾ 이는 헤징전략이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한 전략적 유연성을 가졌다는 의미이다.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전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익과 손실을 상호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균형과 편승에 따르는 국가의 자율성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림과 쿠퍼(Lim & Cooper)는 헤징전략은 단순히 균형과 편승의 스펙트럼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호성(ambiguity)’ 차원을 추가하여 모호성이 높은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주장한다.¹³⁾ 이는 두 국가 사이의 경쟁에 있어 결과의 모호성이 존재할 때 균형과 편승의 이분법적 선택이 아닌 제 3의 외교전략으로서 헤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1> 균형-편승-헤징 개념도¹⁴⁾



12) 이수형, “동아시아 안보질서에서 강대국과 중견국의 헤징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제28권 제3호(2012), p. 6.

13) Darren J. Lim and Zack Cooper(2015), p. 712.

14) Darren J. Lim and Zack Cooper(2015), p. 712를 참조하여 저자가 재작성.

최근에 이 용어는 국가의 전략을 표현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약소국들이 강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정 세력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이슈별로 서로 다른 대응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회피하려는 전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헤징전략을 ‘특정 국가가 경쟁관계에 있는 두 국가 사이에서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고 동시에 양측 모두에서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개념정의한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한편으로 헤징전략을 ‘줄타기외교’ 또는 ‘시계추외교’와 유사하게 보이도록 만들지만 후자의 개념들이 외교적 입장을 번복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지칭한다면 헤징전략은 이슈를 구분하여 동시에 접근하는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엄격히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전략으로써 헤징전략이 가장 두드러지게 적용되는 지역은 동아시아다. 동아시아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으며, 이 지역 국가들에 있어 이들 두 강대국과의 관계는 생존에 있어 필수적이다. 특히, 한국·호주·대만·ASEAN 등 많은 국가들은 안보에 있어 미국과의 협력을 선택하면서, 동시에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중 간의 패권경쟁은 이들 국가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쉽사리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에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다. 안보를 위해 미국을 선택하자니 경제적 어려움이 두렵고, 그렇다고 경제를 위해 중국 편에 서기에는 안보적으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한국만 보더라도 미국과 공식적인 군사동맹을 유지하면서 대중 무역의존도가 34.4%에 이른다. 이는 ASEAN과 미국, 유럽연합(EU)를 합친 것에 버금가는 수치이다.¹⁵⁾ 이 문제를 해결하

15) 한국경제, “수출시장 다변화한다더니...中 쏠림 역대 '최고,’”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10396531> (검색일: 2020년 6월 5일).

기 위해 이들 국가들이 선택한 전략이 바로 헤징전략이다. 안보와 경제 이슈를 구분하여 서로 다르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헤징전략은 일반적으로 '약소국의 전략'으로 인식되지만 강대국들도 헤징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¹⁶⁾

물론 헤징전략의 틀로 남-북-이란 삼각관계를 바라보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헤징전략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위협을 전제 한 상황에서 사용된다. 즉,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쟁관계가 이란에게 있어 위협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물리적 거리, 국가가 위치한 지역 등 지정학적 요소나 남-이란, 북-이란의 개별적인 관계를 살펴보다라도 남-북 간의 갈등이 이란에게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징전략을 분석틀로 사용하려는 것은 헤징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고정된 개념이 아니며, 일부에서는 대외전략의 하나의 성향으로써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즉, 헤징전략이라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슈별 분리접근을 통한 국가 이익추구를 설명하기 위해 단지 경제학적 용어를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본 글의 분석틀로 사용하고자 한다.

3.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

1980년에 시작되어 약 8년간 이어졌던 이란-이라크 전쟁은 중동의 패권을 두고 벌인 지역적 패권전쟁이었다. 시아파의 이란과 소수 수니파가 지배하는 이라크는 중동의 맹주자리를 놓고 경쟁하였는데,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다. 이란은 이라크

16) 이수형(2012), p. 8.

가 이란 내 반정부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라크 내 시아파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이라크는 이란이 내정에 간섭하고 있으며, 이라크 내 반정부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처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980년 9월 22일 사담 후세인은 전격적으로 이란을 침공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하였다.

전쟁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아랍과 페르시아 민족 사이의 오랜 갈등이었다. 역사적으로 아랍인들은 페르시아의 사산 왕조를 멸망시키고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였다. 이슬람 제국에 편입되어 아랍인들의 지배를 받게 된 페르시아인들은 정치적·종교적으로 독립하려는 열망을 갖게 되었다. 다음은 종교갈등으로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란과 이라크 사이의 국경문제가 있었다. 양국의 국경을 이루고 있던 샤투 알 아랍(shatt al-Arab) 수로는 페르시아만과 연결되어 있어 정치·경제·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였다. 지역 내 영국의 존재로 인해 수면 아래 묻혀 있던 영유권 문제가 1968년 영국군의 철수와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는 국경 분쟁으로 이어졌다.

전쟁이 발발하자 많은 전문가들은 이라크의 신속한 승리를 예상하였다.¹⁷⁾ 당시 이란의 상황이 국내·외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란은 이슬람 혁명 이후 민주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 그리고 교조적 이슬람 세력 등 3개의 세력이 국내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 투쟁하고 있었으며, 미 대사관 인질사건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더구나 7세기경 아랍이 페르시아 군대를 대패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의 몰락을 가져왔던 ‘카디시야 전투’를 기념(hommage)해 명명된 ‘사담의 카디시야(이라크의 전격전)’의 초기 성과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뒷받침하였다.¹⁸⁾

17) Shirin Tahir-Kheli and Shaheen Ayubi, 『The Iran-Iraq War: New Weapons, Old Conflicts』 (NY: Praeger Publishers, 1983), p. 27.

18) Pierre Razoux, 『The Iran-Iraq War』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하지만, 전쟁은 쉽사리 끝나지 않았다. 이라크는 전쟁 초기 전술적 승리를 쟁취하였지만, 전략적 승리는 달성하지 못한 채 8년이라는 예상치 못한 긴 시간동안 전쟁은 지속되었다. 이 전쟁을 통해 이란과 이라크는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도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하지 못했다.

<표 1> 전쟁 피해 현황¹⁹⁾

구 분		이라크	이란
인적 피해	전사자	10만명	25만명
	부상자	15만명	50만명
	포로수	5만명(이란억류)	3만명(이라크억류)
물적 피해	전쟁피해	2,516억불	5,032억불
	군사비(연평균)	901억불 (113억 9,000만불)	493억불 (61억 2,000만불)
	경제적 손실 (시설피해로 인한 간접피해)	1,700억불	918억불

전쟁의 결과 이란과 이라크는 국내적으로 정치체제가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라크는 후세인의 독재체제가 모습을 드러냈으며, 시아파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으로 이어졌다. 이란에서는 신정체제가 등장하여 대통령 위에 최고지도자를 두는 이슬람 공화국이 탄생하였다. 경제적으로 양국 간의 전쟁은 석유감산으로 이어졌으며 국제유가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 군사적으로는 이라크의 화학무기 사용이 문제시 되었다. 이라크는 쿠르드족 거주지에 화학공격을 감행하여 3,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으며, 비대칭무기 개발에 더욱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p. 21.

19) 국방정보본부, 세계군사정세(1988/1989년도판), p. 360. 정춘일, “이란-이라크전쟁 군사적 조명,” 『한국중동학회논총』 제10권(1989), p. 17에서 재인용.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지역적으로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랍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걸프 지역으로 전환되었으며,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쳤다.²⁰⁾ 즉, 이란-이라크 전쟁은 중동의 구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재편하는 지역적 패권전쟁이었다.

4. 전쟁 초기 남-북-이란 삼각관계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남-북-이란의 삼각관계는 기존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매우 독특한 관계다. 전통적인 국제관계에서는 ‘적의 적은 나의 친구(Enemy of my enemy is my friend)’ 또는 ‘내 친구의 적은 나의 적(Enemy of my ally is my enemy)’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위 논리에 따르면 이란은 명백히 미국의 적국이며, 이에 따라 미국과의 동맹관계인 한국은 이란과 적국의 관계가 된다. 역으로 북한에게 있어 이란은 철천지 원수인 미국의 적국이기 때문에 친구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군사동맹(military alliance)이나 전략적 파트너십(Strategic Partnership) 등이 전무한 상태로 이론에서만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다. 즉, ‘내 친구의 적은 나의 적이 아니다(Enemy of my ally is not my enemy)’의 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것이다.²¹⁾ 그렇다면, 전통적인 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헤징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 헤징전략이 등장하게 된 배경 또한 기존 이론의 한계로 인한 것이었음을 앞에서 살펴보

20) Ronen Zeidel, "Implications of the Iran-Iraq War," E-International Relations (Oct, 2013), <https://www.e-ir.info/2013/10/07/implications-of-the-iran-iraq-war/> (검색일: 2020년 6월 21일).

21) Lyong Choi et al, "The Enemy of My Ally Is Not My Enemy: The ROK-U.S. Alliance and ROK-Iran Relations, 1978-1983," Asian Perspective, Vol. 41, No. 3(2017).

았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헤징전략을 통해 이란-이라크 전쟁 초기 이란의 대한반도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격적인 사례연구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북한과 이란의 관계에 대한 평가가 학자들마다 서로 엇갈린다는 것이다. 본 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과 이란의 관계가 이론에서 예측하는 것만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일부는 북한과 이란이 공식적인 동맹관계가 아니더라도 ‘준-동맹(quasi-alliance)’에 가까운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과 이란은 과거부터 군사적 협력을 통해 미사일 기술 등을 교류해왔으며, 칸-네트워크(Khan-network)를 통해 핵 관련 기술을 상호 공유해왔다고 의심받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2015년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북한과 이란을 ‘전략적 동맹(The Iran-North Korea Strategic Alliance)’이라고 표현하면서 “두 국가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동맹(natural alliance) 관계이다”라고 언급하였다.²²⁾

하지만 또 다른 견해에 의하면 북한과 이란은 상호 관계의 인식에 있어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이란에 갇지 않은 약 3억 달러 규모의 부채, 시아파 이란과 수니파 국가들로 이루어진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사이에서 북한이 취한 모호한 태도는 이란이 북한을 매우 현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든 요인이었다.²³⁾ 즉, 양국 간에 다양한 군사 협력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과 이란의 관계는 서구 학자들이 가정하는 것만큼 깊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²⁴⁾ 2018년 JCPOA

22)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Iran-North Korea Strategic Alliance』 (Washington: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2015), p. 27.

23) Lyong Choi et al(2019), p. 596.

24) The Diplomat, "The Myth of a 'Special' North Korea-Iran Relationship," <https://thediplomat.com/2017/04/the-myth-of-a-special-north-korea-iran->

과기 이후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이란 방문에서도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 발표 이상으로 성과는 없었다는 점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후자의 입장에서 북한과 이란의 관계를 바라보고 논지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가. 북한-이란 관계

이란-이라크 전쟁은 북한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 협력관계의 계기가 된 전쟁이기도 했다.²⁵⁾ 미 국방성의 발표에 따르면 1982년에 북한은 이란에 20억불에 해당하는 무기를 수출하였으며, 이는 이란의 무기 총수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수출 상세내역은 T-62형 전차 150대, 대포 400문, 박격포 1,000문, 대공포 600문, 소화기 12,000정이었으며, 북한 군사 교관 300명이 지원되어 이란 군 강화에 기여하였다. 이에 대해 이란은 4년간 배럴당 30불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북한에 원유 400만톤을 공급하였다.²⁶⁾ 여기에 더해 북한은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면서 정비요원까지 파견해 이란을 군사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란 쉬라즈 기갑 훈련소에 파견되었던 북한 군사요원(약 30~50명)은 이라크로부터 노획한 소련제 전차 수리임무를 맡았으며, 쉬라즈 공항에 파견된 북한 군사요원 약 15명은 헬기 및 항공기 수리요원으로 잔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²⁷⁾

실제로 1983년 이란의 수상 무사비(Mir Hossein Musavi)는 북한을 급거 방문하여 김일성과 면담을 갖고 무기 보충문제를 중점적으로 협의하였고, 이란 측은 랑군사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국제사회에서 적극 옹호하고 이란 측의 우방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약속

relationship/(검색일: 2020년 5월 9일).

25) 외교문서 중동720-227(83. 2. 1) “대 이란 지원 첩보”.

26) 외무부 착신전보, “김일성의 시장”(83. 1. 11).

27) 외무부 착신전보, “자료응신 제37호”(83. 2. 28).

하는 한편, 북한이 원하는 만큼의 원유공급을 제의하는 대신 북한의 장거리 SS 로켓 및 전차공급과 약 7천만불 상당의 소총 등 개인화기 공급을 요청, 양측이 합의를 보았다.²⁸⁾

뿐만 아니라,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공급받은 무기 중에는 대량의 탄도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양국의 미사일 개발 협력은 주로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을 이란에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북한은 이집트로부터 획득한 미사일을 분해-재조립하면서 미사일 설계와 생산능력을 갖추었고 이를 통해 개발한 사거리 300km의 스킨-3과 500km의 스킨-4를 이란에 수출하였다. 이란은 이라크와의 전쟁 기간 동안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미사일을 활용하여 전쟁을 수행하였으며 기술이전을 통해 자체적인 미사일 생산 능력을 구비해 나갔다.²⁹⁾

북한과 이란의 군사협력은 다른 중동 국가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란의 수상이 북한을 방문하여 무기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 이집트, 요르단 등을 포함한 중동국가들은 대이란 무기지원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하기도 하였고, 북한이 이란에 공급하고 있는 무기 전량을 일괄 구매하여 이란에 북한의 무기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계획도 수립하였다.³⁰⁾ 이에 북한은 아랍국가들의 반발과 경제적·외교적 압력에 따라 대이란 무기수출을 중단할 것을 약속하였다.

당시 대한민국의 주 카이로 부총영사가 북한의 대이란 무기지원 중단약속과 관련, 그 이행 여부에 대한 이집트측 전망을 타진한 결과 성공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하였다. 당시 외부무 자료를 보면

28) 외부무 착신전보, “북괴-이란 군사협력”(83. 10. 28), “이란-북괴 군사협력”(83. 11. 16).

29) Paul K. Kerr et al, “Iran-North Korea-Syria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Cooperation,” CRS Report, R43480(April 16, 2014), pp. 3-4.

30) 외부무 착신전보, “북괴-이란군사 협력”(83. 11. 1), “이라크-북괴관계”(83. 11. 18).

첫째, 무바라크(Hosni Mubarak) 대통령 및 가잘라(Abu Ghazala) 국방상 방북시 북한의 이란에 대한 무기지원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고, 기 계약분 외 신규계약은 없을 것이라는 언약을 받았고, 둘째, 이집트 측이 북한에 대해 이란 무기지원을 중단토록 요청함에 있어 북한이 이란에 판매할 무기를 이집트가 이란보다 고가로 구입하겠다고 제의하였으므로 경제적 손실은 없을 것이며, 셋째, 대 이란 무기지원 중단요청은 이집트-북한간 구체적 검토가 진행중인 대공 무기 생산 협력사업 성사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북한이 이집트의 요청에 응해야 할 입장에 있다고 보이며, 넷째, 북한은 이집트와의 군사협력분야 외에도 이집트와의 관계에 대해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임을 이유로 들면서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다.³¹⁾

하지만 북한의 무기공급 중단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소련을 통하여 북한의 무기공급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란은 대소련 접근을 통해 우선적으로 이란-소련 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우회적으로 북한의 무기공급을 재개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 이란은 이란 내 공산당 당수를 석방하고 공산당 활동을 정식으로 허용하는 것까지 고려하였던 것 같다. 여기에 더해 이란군 고위 사절단은 1984년 7월 방북하여 북한의 전투기 조종사를 추가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는 북한 요원이 이란측의 공격작전에 가담되어서는 안된다는 조건으로 상기 요청을 고려하겠다고 동의³²⁾하고 계속

31) 외무부 착신전보, “북괴의 대이란 무기지원 중단문제”(84. 5. 1).

32) 북한이 전투기 조종사의 파견을 긍정적으로 고려했다는 사실은 북한 전투기 조종사들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했었던 사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일성은 베트남전쟁 파병 준비 중인 비행사들에게 “군대는 총소리도 들어보고 화약 냄새도 맡아 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전능력을 배양하고 전술을 연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신재, “북한 공군의 베트남전쟁 참전,” 『현대북한연구』 19권 3호(2016), p. 18 참조.

적인 이란산 원유공급을 요청하였다.³³⁾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란은 북한에게 철저히 군사적 목적으로 접근하였다. 전쟁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북한에게 접근했던 것이다. 심지어 북한이 무기공급 중단을 결정했을 때조차 소련을 우회하여 지속적으로 북한에게 접근하였다. 그렇다고 공식적인 동맹 수준의 관계를 모색했던 것은 아니었다. 필요에 의한 관계였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북한 역시 무기수출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 및 현금확보, 랑군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의 군사협력이 다른 중동국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분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요청에 응했던 것이다.

이란-이라크 전쟁 초기 북한과 이란의 군사교류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함의를 지닌다. 첫째, 반미를 기반으로 하는 양국관계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란의 호메이니 혁명 이후 반미성향의 정부가 들어서자 이란과 북한은 반미 공동전선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북한의 대이란 군사지원은 북한-이란군 간 군사적 유사성을 높였다. 북한과 혁명 이후의 이란은 소련제 무기체계를 기반으로 군을 운용하였으며, 북한의 군사교관 파견은 전술적·교리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군사교류를 통해 형성된 군사적 유대는 양국이 핵과 미사일 기술을 공유하는 기반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로 양국 사이의 ‘핵-미사일 커넥션’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며 2020년 11월 암살된 이란의 핵 과학자가 2006년부터 진행된 북한의 핵실험을 참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³⁴⁾

33) 외무부 착신전보, “이란군 고위사절단 방북”(’84. 7. 13).

34) 조선일보, “암살된 이란 핵과학자, 北 1~3차 핵실험 모두 참관,”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0/12/03/3A6IMXQMIONTTQ/>(검색일: 2020년 12월 15일).

나. 한국-이란 관계

반면, 전쟁 기간 중 이란의 대(對)한국 접근은 다소 상이한 모습을 드러낸다. 군사적인 접근보다는 경제적인 교역에 집중하는 모습이였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 중동 진출 과정에서 2만여 명 이상의 한국인이 이란 내 건설시장 등에 진출하여 양국관계 발전의 기반을 닦고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1970년 후반과 1980년 초 반미성향의 호메이니 정권 등장, 테헤란 미 대사관 인질 사건 등으로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일시적으로 한국-이란 관계가 소원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이는 곧 회복되었다. 이란은 전쟁수행과 경제적 목적을 위해 다른 나라의 지원을 필요로 하였고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섰던 것이었다. 한국과 이란의 경제적 교류는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과 건설 프로젝트에 집중되었다. 실제로 1981-1984년의 전쟁 초기 기간 한국과 이란의 교역량은 2.5배가량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2> 한국-이란 교역 현황(1977-1988)



*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물론 한국과 이란의 교역에서 군사적인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란은 팔레비 왕조 시절 친미적 성향으로 인해 무기체계의 다수가 미국산 제품이었다. 하지만 혁명 이후 반미 성향으로 돌아서면서 전쟁 수행을 위해 소련제 무기체계를 도입하였고 기존의 무기체계를 유지·보수할 부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되자 미국산 무기체계를 운영하는 한국, 대만, 이스라엘 등에 접근하였다. 특히, 한국과 이스라엘은 미국산 무기의 부품을 공급하는 주요 국가였다.³⁵⁾ 하지만, 한국이 이란에 무기의 부품을 공급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위험한 비즈니스였다.³⁶⁾ 따라서, 북한의 대이란 군사협력에 비해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을 뿐이다. 미국 역시 한국과 이란 사이에 있었던 무기 부품 거래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³⁷⁾

게다가 사우디, 이라크 등 다른 중동국가들은 대한민국이 이란에 대해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사우디는 한국대사를 초치하여 한국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 무기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서울과 테헤란 사이에 수송이 시작되었다는 첩보를 언급하면서 적절한 설명이 없을 경우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하였다. 이라크 역시 주 바그다드 총영사를 초치하여 한국 군사사절단이 이란을 방문하여 4천 7백만 달러 상당의 팬텀기, 전차, 로켓포의 부속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첩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가까워지고 있는 한국과 이라크의 관계가 급속히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외무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상기 첩보 내

35) Joe Stork, "Arms Merchants in the Gulf War," Middle East Research and Information Project, Vol. 14, No. 125(September/October, 1984), p. 39.

36) Lyong Choi et al(2017), p. 414.

37) Lyong Choi et al(2017), p. 418.

용들이 사실이 아님을 설명하였다. 첫째, 한국은 이란-이라크 전쟁 발발 이래 현재까지 이란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군사지원도 제공한 바 전혀 없으며 이러한 첩보는 사실무근의 날조된 내용이며 한국과 우방국인 중동지역 아랍세계와 우호관계를 이간시키려는 의도적인 음모이며, 둘째, 북괴가 대량의 무기를 이란에 공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과 중동지역 각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국의 대이란 지원은 있을 수 없는 일임과 동시에, 셋째, 이란 항공화물기가 아국에 운항한 사실은 민간상사가 대이란 일반 상거래 계약에 따라 의류(방한복 및 작업복 16만 벌)를 수송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다른 물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³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국은 이란에 미국산 무기 부품을 일부 공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³⁹⁾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란이 더 이상의 무기 수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경제적인 교역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이란에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소련,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북한 등 15개 국가에 달했으며, 한국과의 무기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들이 충분히 있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란은 한국과 미국,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한국과의 교역은 오직 사적인 기업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당시 남북 사이의 경쟁관계는 이란이 양국으로부터 군사적·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촉발된 신냉전의 국제적 기류는 한반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제정세가 급속히 냉각되어 가던 시기에 남한과 북한은 정치·경제·외교적으로 경쟁했다. 당시 한국에 새롭게 등장한 군사정권은 정당성 확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38) 외무부 착신전보, “대이란 지원 첩보”(83. 2. 1).

39) 한국은 당시 이란이 운용하던 M-48, M-60전차와 F-4, F-5, AH-1헬기 등 미국산 무기체계의 부품을 공급하였다. Pierre Razoux(2015), p. 553.

하고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이어나갔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경쟁 상황 속에서 중동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중동의 석유 에너지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양국 경제에 핵심적인 원료였으며, 특히, 석유 수입의 약 8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던 한국 으로서는 더욱 그러했다. 이처럼 남북한 양국은 중동에 국가적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지역에서 벌어진 이란-이라크 전쟁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간단히 말해, 이란은 남북한의 경쟁 관계와 자신들의 전략적 이점을 이용하여 남한과 북한에 대해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실리적으로 접근하였다. 경제와 군사로 이슈를 구분하여 헤징함으로써 남북한으로부터 국가 이익을 획득했던 것이다.

5. 결 론

남-북-이란의 삼각관계는 전통적인 이론을 통해서 설명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퍼즐의 조각을 맞춰보기 위해 우리는 앞서 헤징전략의 분석틀로 3국 관계를 바라보았다. 헤징전략은 통상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펼치는 안보전략으로 인식되지만, 남-북-이란 삼각관계에서의 이란과 같이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도 다소 약한 국가를 상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⁴⁰⁾ 즉, 헤

40) 1980년대 초반 한국, 북한, 이란 3개국의 국력을 GDP와 국방비를 통해 비교해보면 이란(GDP 943억불/국방비 42억불)은 한국(GDP 654억불/국방비 34억불), 북한(GDP 98억불/국방비 13억불)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국력을 보유했음을 알 수 있다. World Bank, "GDP(current US\$),"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locations=IR>(검색일: 2021년 3월 30일); IISS, 『The Military Balance 1980-81』 (London: Arms and Armour Press, 1980), pp. 42-71.

징전략은 상당한 정책적 자율성을 통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은 남한과 북한을 상대하면서 철저히 국익 중심으로 접근했다. 남한과는 건설, 의류, 석유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협력하면서, 북한과는 군사적인 협력을 통해 안보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였다. 어느 한쪽에 경도되지 않는 이란의 중립적인 태도는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이란의 반응에서도 잘 나타난다. 2010년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이란의 뉴스 보도는 남북 양측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특정 국가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였다.⁴¹⁾

본 연구가 가지는 함의는 크게 2가지 정도로 생각된다. 첫째, 냉전기 남-북-이란의 관계에 대한 조금 더 선명한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관계가 아닌 새로 공개된 외교 문서를 통해 바라본 삼각관계는 훨씬 더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란은 북한과 군사동맹 체결을 고려하진 않았지만, 전쟁 수행을 위한 군사적 지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남한에 대해서도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사실에 연연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접근하였다. 오히려 미국산 군사장비의 부품을 조달하기 위해 부분적으로는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사실을 적극 이용한 것처럼 보인다.

둘째, 헤징전략이 반드시 약소국의 전략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국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어느 국가나 헤징전략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 이란은 북한 친화적인 요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적절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서 일정한 경제적·군사적 이익을

41) Balazs Szalontai, "Cracks in the North Korea-Iran Axis: Elements of dissonance in the rhetoric of the Tehran-Pyongyang partnership," <https://www.nknews.org/2014/08/cracks-in-the-north-korea-iran-axis/> (검색일: 2020년 8월 3일).

확보하였다. 간단히 말해,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국익 중심의 사고와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물론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다. 우선, 이란의 남과 북에 대한 접근을 헤징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분석하였지만, 실제로 이란이 의도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헤징전략을 통해 남한과 북한에 접근하였는지는 분명치 않다. 만약 북한이 경제적으로 남한보다 우세한 위치에 있었거나, 반대로 남한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무시하고 이란과의 군사기술적 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 이란의 태도는 분명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증명해내기는 매우 어렵다. 두 번째로, 삼각관계에 있어 강대국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과 이란의 관계, 북한과 이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 변수를 일부 언급은 하였지만, 오히려 강대국을 핵심변수로 바라보는 것이 삼각관계를 더 잘 설명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가 다양한 변수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만큼 ‘헤징’이라는 틀로 바라보는 것도 의미있는 접근이라 생각된다.

(원고투고일 : 2021. 3. 30, 심사수정일 : 2021. 5. 13, 게재확정일 : 2021. 5. 28.)

주제어 : 헤징전략, 남-북-이란 삼각관계, 이란-이라크 전쟁

<참고문헌>

- 이수형, “동아시아 안보질서에서 강대국과 중견국의 헤징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제28권 제3호(2012).
<http://doi.org/10.17331/kwp.2012.28.3.001>
- 이신재, “북한 공군의 베트남전쟁 참전,” 『현대북한연구』 19권 3호(2016).
<http://uci.or.kr/I410-ECN-0101-2017-341-001990562>
- 외무부 착신전보, “김일성의 시장”(’83. 1. 11).
- 외교문서 중동720-227(’83. 2. 1) “대 이란 지원 첩보”.
- 외무부 착신전보, “대이란 지원 첩보”(’83. 2. 1).
- 외무부 착신전보, “자료응신 제37호”(’83. 2. 28).
- 외무부 착신전보, “북괴-이란 군사협력”(’83. 10. 28), “이란-북괴 군사협력”(’83. 11. 16).
- 외무부 착신전보, “북괴-이란군사 협력”(’83. 11. 1), “이라크-북괴관계”(’83. 11. 18).
- 외무부 착신전보, “북괴의 대이란 무기지원 중단문제”(’84. 5. 1).
- 외무부 착신전보, “이란군 고위사절단 방북”(’84. 7. 13).
- 정춘일, “이란-이라크전쟁 군사적 조명,” 『한국중동학회논총』 제10권(1989).
<http://uci.or.kr/I410-ECN-0102-2009-910-005083382>
- 조선비즈, “한국, 지난해 대이란 수출 89% 급감...상위 20개국 중 최대 낙폭,”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2/2020011200271.html (검색일: 2020년 5월 9일).
- 조선일보, “암살된 이란 핵과학자, 北 1~3차 핵실험 모두 참관,”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0/12/03/3A6JA6SP3JENBHIIMXQMIONTTQ/>(검색일: 2020년 12월 15일).
- 중앙일보, “이란-북한 수교협정,” <https://news.joins.com/article/1345868>
(검색일: 2020년 5월 9일).
- 한국경제, “수출시장 다변화한다더니...中 수출 역대 '최고,’”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10396531> (검

색일: 2020년 6월 25일).

Balazs Szalontai, “Cracks in the North Korea–Iran Axis: Elements of dissonance in the rhetoric of the Tehran–Pyongyang partnership,”

<https://www.nknews.org/2014/08/cracks-in-the-north-korea-iran-axis/> (검색일: 2020년 8월 3일).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Iran–North Korea Strategic Alliance』 (Washington: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2015).

Dalia Dassa Kaye, “The Strategic Fallout of U.S. Withdrawal from the Iran Deal,”

<https://www.rand.org/blog/2018/05/the-strategic-fallout-of-us-withdrawal-from-the-iran.html> (검색일: 2020년 8월 3일).

Darren J. Lim and Zack Cooper, “Reassessing Hedging: The Logic of Alignment in East Asia,” *Security Studies*, Vol. 24, No. 4 (2015).

<https://doi.org/10.1080/09636412.2015.1103130>

IISS, 『The Military Balance 1980–81』 (London: Arms and Armour Press, 1980).

Ivan Timofeev, “US Withdrawal From the JCPOA and Anti–Iranian Sanctions: Pros and Cons,”

<https://russiancouncil.ru/en/analytics-and-comments/analytics/us-withdrawal-from-the-jcpoa-and-anti-iranian-sanctions-pros-and-cons/> (검색일: 2020년 8월 3일).

Joe Stork, “Arms Merchants in the Gulf War,” *Middle East Research and Information Project*, Vol. 14, No. 125(September/October, 1984).

Lyong Choi et al, “The Enemy of My Ally Is Not My Enemy: The ROK–U.S. Alliance and ROK–Iran Relations, 1978–1983,” *Asian*

- Perspective, Vol. 41, No. 3(2017).
<http://doi.org/10.1353/apr.2017.0019>.
- Lyong Choi et al, “The Dilemma of the “Axis of Evil”: The Rise and Fall of Iran–DPRK Relation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31, No. 4(December, 2019).
<http://uci.or.kr/I410-ECN-0102-2021-300-000096354>
- Paul K. Kerr et al, “Iran–North Korea–Syria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Cooperation,” CRS Report, R43480(April 16, 2014).
- Paul K. Kerr and Kenneth Katzman, “Iran Nuclear Agreement and U.S. Exit,” CRS Report, R43333(July 20, 2018).
- Pierre Razoux, 『The Iran–Iraq War』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 Ronen Zeidel, "Implications of the Iran–Iraq War," E–International Relations(Oct, 2013),
<https://www.e-ir.info/2013/10/07/implications-of-the-iran-iraq-war/> (검색일: 2020년 6월 21일).
- Shirin Tahir–Kheli and Shaheen Ayubi, 『The Iran–Iraq War: New Weapons, Old Conflicts』 (NY: Praeger Publishers, 1983).
- The Diplomat, “The Myth of a 'Special' North Korea–Iran Relationship,”
<https://thediplomat.com/2017/04/the-myth-of-a-special-north-korea-iran-relationship/> (검색일: 2020년 5월 9일).
-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Trump on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joint-comprehensive-plan-action/>(검색일: 2020년 8월 3일).
- World Bank, “GDP(current US\$),”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locations=IR>(검색일: 2021년 3월 30일).

(Abstract)

The Triangle Relations among ROK, DPRK and Iran : Iran's Hedging Strategy in the early stage of Iran-Iraq War(1980-1984)

Lee, Han-hyung

In traditional international relations, the logic of 'Enemy of my enemy is my friend' or 'Enemy of my ally is my enemy' i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above logic, Iran is clearly an enemy of the United States, and ROK, which is an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surely becomes an enemy of Iran. Conversely, for DPRK, Iran is an enemy of the United States, so they should be friends in theory, but in reality, it is not as close as in the above logic. In other words, the relationship of 'Enemy of my ally is not my enemy' is established.

As such, although the relationships among ROK, DPRK and Iran are difficult to form and maintain, the reality is not. There are common interests, and as a result, the relationship continues beyond theoretical prediction. If so, what variables are the determinants of the triangle relations? Why is the ROK-DPRK-Iran triangle relations maintained differently from theoretical predictions? What is the theoretical alternative to explain the relations? This study argues that Iran'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is similar to the 'hedging strategy'. Iran has gained economic and military benefits by appropriately using the conflict and rivalry between the two Koreas, and used it for the Iran-Iraq war and anti-US diplomacy. In conclusion, there are sources that can seek mutual benefits between the ROK-DPRK-Iran, and contrary to theoretical predictions, a paradoxical relationship is maintained.

Keywords : Hedging Strategy, ROK-DPRK-Iran Trilateral Relation,
Iran-Iraq War